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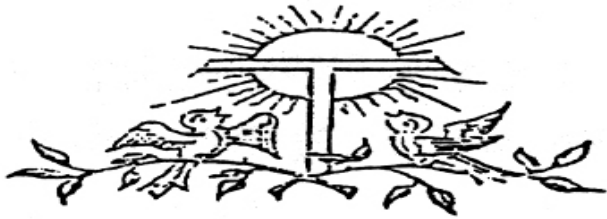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06호 2007년 6월 17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하느님의 겸손한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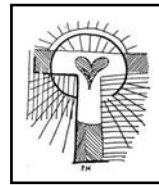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선보다 자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선을 더 많이 자랑하지 않는 그런 종은 복됩니다.

주 하느님께 자기의 것을 바쳐 드리기를 원하기보다 자기 이웃에게서 받기를 더 원하는 인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 영적 권고 17 -

권고 말씀의 근본적인 테마는 내적 가난 안에서 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소유없이 사는 프란치스코 생활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소유 없이 사는 내적 가난의 목적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또한 나와 다른 인간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부님은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요구하는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형제애의 길은 바로 내적 가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서로간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 뿐이다’(마태 23,89-: 제1회칙 22,33-34)’라고 하셨드시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며 이런 형제적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살 때는 공동 생활이 잘 되다가도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공동체에 지나지 않을 뿐, 크리스천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 형제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므로, 인간적 애정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는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요한15,9)’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은 섬기고 봉사하는, 한 마디로 겸손한 사랑입니다.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 와 있다’(루가 22,27).’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마태 20,28).’ 이처럼 크리스천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볼 수 있게끔 드러내는 사랑이어야 하고 진정 남을 섬기는 사랑이어야 하며 서로의 섬김과 봉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겸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겸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사부님 말씀처럼 자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성공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겸손한 자녀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자임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내적인 가난을 가지도록 권고하셨습니다.

- 영적 권고 묵상집에서 -

진정한 율법 완성의 길

율법은 무엇이며, 예언서는 무엇인가? 구약의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에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율법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계약이며, 예언서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예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예언서는 하느님 의지의 일관된 표현이며, 예수의 도래로 말미암은 신약의 시대에도 구약에서와 똑같은 효력을 지닐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율법과 예언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말할 필요없이 그 계명이 사람에게 의해 준수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계명은 진정 성취된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서술상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유대교의 율법과 규정을 어기신다. 몇 번은 예수의 제자들이 어기기도 했지만 이 잘못 또한 당연히 스승인 예수께 돌아가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은 병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등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자주 하였고, 정결규정도 가볍게 여기셨다.(마태 12,1-8.10-14; 15,1-2) 또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심으로 하느님만이 가지시는 죄사함의 권한을 침해하셨다.(마태 9,2-6)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율법체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으며, 천지가 사라져도 율법은 일 점 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우선 예수의 율법과 율법학자들의 율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과 그 안에 세워진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전 율법"도 율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구전율법은 율법과 전통에 관한 율사들의 구전해설을 말하며 이런 것을 집대성한 탈무드의 미슈나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미슈나 샤바트(안식일법 규정)에는 39개의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목록이 적혀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율사들은 365개의 금령과 248개의 행령 등 613개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 하나라도 어기면 곧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규정과 세칙의 준수를 율법의 완성으로 보았다.

반면에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율법은 율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이다. 율사들은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자기들 고유의 정신으로 해석하여 하향적으로 세칙을 정하고, 이 세칙의 준수를 율법의 완성으로 보았다면, 예수께서는 구체적인 세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정신을 상향적으로 조명하여 원초적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신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예수와 율사의 관점은 정반대로 향한다고 하겠다.

이로써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확실하다. 그분은 율법 하나 하나와 그 일 점 일 획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정신과 그 참뜻을 밝혀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도 없애지 않고 완성하는 길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일 점이나 일 획에 집착하지 않고 이를 심화시키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이를 폐기시키기도 하실 것이다.

산상 설교의 권두에서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건실히 유지하고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께서 오늘은 진정한 율법 완성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제 이 방법으로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새로운 대명제를 도래한 하느님 나라에 살게 될 시민이 가져야 할 자격으로 선포하실 것이다...

-박상대 신부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 마더 테레사 -

성서 묵상 (마태 26,14-25)

세상의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내가 입으로 는 '주님, 주님'하면서
유다같은 나 아닌가? 우리 마음 구석구석
까지 아시는 주님께 유다같이 나는 아는 척
하는 삶을 살지 않는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이지 하드시
하루 하루 내 입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거부하는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김젼마 -

- 체로 세 번 걸러라 -

누군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럴 수가 있나! 여보게, 소크라테스.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나? 아마 자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이지..."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해 주려는 소식을 체로 세 번 걸렀는가?"

그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체로 세 번 걸렀냐고? 무슨 체를 말하는 건가?"

"첫 번째는 진실이네. 지금 말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아니, 그냥 거리에서 주워들었네."

"그렇다면 두 번째 체로 걸러야겠군. 자네가
말하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언에서 나온 말인가?"

그러자 그 사람은 우물쭈물하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세 번째 체로 걸러야겠군. 자네가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글쎄...."

"자네가 나에게 전해 주려는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게다가 선언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전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네. 그런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네."

- '행복한 동행' 중에서 -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
또 앞으로 가야할 이 길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귀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냥 무심히 스쳐갈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확신에 찬 응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그동안 우리 보나벤투라회의 영적보조로 수고해 주신 김안티모 신부님의 송별 파티가 오늘 월례회 후 한 데레사 자매덕에서 있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신부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 + 서약 피정이 6월24일(8:30-5:00) 있습니다. 출발시간/장소: 아침 7시, 성 정 바오로성당
준비물: 발자취를 따라서, 필기도구 피정비:\$30
피정장소: Priestfield Pastoral Center
4030 Middleway Pike
Kearneysville, WV 25430
- + 8월부터 새 지원반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성소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을 보시면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반 교재로 사용하는 “요르겐센” “와서 보라 (Come and See)”와 “아씨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무료로 빌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책을 형제회에 도네이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지구형제회 피정이 10월12-14일(금-일)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있겠으며 참석하실 분은 8월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50)
비용: 2명 취침(\$142) / 여러명 취침(\$121)
- + 우리 형제회 서약식이 7월 15일 오후 1:30부터 트라이앵글 St. Francis of Assisi 성당에서 있습니다. 약도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식담당

6월: 이아모스, 김글라라, 허세라피나
윤요안나, 김미경, 김젼마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김 안티모 신부를 위해 ...
- + 7월에 서약/입회하실 분들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6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공지사항/총선거/미사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13번 주를 찬미하여라
봉헌: 33번 주 나의 목자되시니
성체: 43번 주의 잔치
마침: 4번 작은자의 열망

제1독서: 김아가다 제2독서: 이계숙
미사해설: 지요한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6월 17일: 한만섭 바오로

*정정: 지난달 후원회비 수입은 \$500이 아니라 \$430. \$70 은 책값 수입이었음. 그래서 지난달 후원회비 잔액은 \$1220.51.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